

# 호국성사 서산대사 충혼 기린다

### 해남 대흥사, 4월 16일 탄신 492주년 기념 대제

과거 국가제항으로 모셔졌으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지된 '서산대제'가 복원 재현된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4월 16일 오전 10시 대흥사 경내에서 '탄신 제492주년 호국대성사 서산 대제'를 봉행한다.

서산 대제는 오전 9시 30분 예제관 봉향 행렬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중요무형문화재 56호 종묘제례보존회가 집례 하는 서산 대제 봉향, 서산 대제 복원기념 범요식순으로 진행된다.

서산 대제 조선 정조 이래 매년 조선왕실에 의해 봉향돼 왔다. 대흥사에는 서산 휴정, 사명 유정 스님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정조의 왕명으로 지어진 사당 표충사가 있다.

당시 정조는 해남 대흥사와 영변 보현사에 사당을 짓고 각각 표충사와 수충사라고

이름 붙였으며 직접 제문을 작성해 보낸 정도로 호국불교의 정신을 기렸다. 하지만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등 근현대 과정을 거치며 위축돼 사찰 행사 정도로 인식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총회를 비롯한 불교계에서는 복원 공청회 및 국가 차원 봉향 촉구 성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산 대제에는 당시 봉향 기록인 '표충사 향례홀기(表忠祠享禮勿記)'와 '진설도(陳設圖)'를 비롯해 서산대사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도 개관한다.

서산 대제 복원을 기념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호계원장 범등 스님, 금산사를 비롯한 호남 6본사 주지 등 교계 주요 스님들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장과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이 주요내빈으로 참석한다.



2011년 열린 제491주년 서산대제 모습. 대흥사는 매년 서산대사 제를 올리는 등 스님의 선양사업에 힘쓰고 있다.

대흥사는 "국난의 위기에서 중생을 위해 부장관상이 수여되는 제18회 나라사랑 글씨 대회도 열린 예정이다. (061)534-5502" 한편, 이날 대흥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

## 대구불교사원주지聯 회장 경희 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임 회장에 대구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이 추대됐다. 대구사원연합회(마하야나불교문화원)는 3월 26일 불교대구회관에서 제68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 서봉사 경희 스님을 제1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제11대 회장 임기는 5월 1일부터 4년이다. 한편 대구사원연합회는 총회에서 66억 4000여만 원(부설기관 포함)의 2012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 조계종 대구 진명사 개원

대구 평리동에 자리한 조계종 진명사(주지 원임)가 3월 24일 개원법회를 열고 대구 서구지역 포교활동에 본격 나섰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제주 약천사 회주 스님과 포항 오어서 주지 장주 스님, 강성호 대구 서구청장, 김주본 대구 운불련 회장 등 500여 불자들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해인 스님은 "남을 용서하는 밝고 맑은 마음으로 편안한 참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법문했다.

진명사 주지 원임 스님은 "개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도움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 대구불교총聯 정기총회 개최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성문, 동화사 주지)는 3월 24일 대구 문화웨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불총은 총회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를 비롯한 각종 기획사업과 전통등 심포지엄을 비롯한 학술연구사업, 유소년 풋살대회를 비롯한 각종 포

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불총 회장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를 시작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 대불련 전북지부, 내장사서 산사체험

한국대학생 불자연합회 전북지부(지부장 최경선·전북대 2)는 3월 24-25일 정읍 내장사에서 새내기 회원들과 함께 산사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대불련 전북지부 소속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생불자들이 구성된 대불련 전북지부 학생들은 예불, 108배, 명상체험, 참선, 스님과의 대화, 사찰 전각의 이해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산사에서의 생활을 체험했다.

신경선 회장은 "이번 산사체험을 통해 새내기학생들에게 산사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 대불련 나아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매월 산사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빛고을마이리더스클럽, 지역불자 강좌 개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운영하는 빛고을마이리더스클럽(대표 임영광)은 3월 22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원영 스님(전 조계종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을 초청해 초기불교의 생활상에 대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강좌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살았으며, 의식주 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원영 스님은 법문에서 "주체에 대한 답은 불교경전의 울장이다. 초기 불교가 융성해지고, 출가자가 늘어나면서 불교의 다양한 계층이 생겨났다"며, "당시 수행

자들이 얼마나 혹독하고 엄한 규율 속에서 수행했는지를 생각하여, 오늘날 우리 모습들을 점검하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임영광 대표는 "올해에는 불교의 수행관련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부모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MY리더스클럽은 지난 2010년에 만든 지역불교단체로 불자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재가불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불교교리의 발달사, 세계불교의 흐름, 등 강의와 지역 사회 돕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월 25일 청암사에는 여러 종단 스님 20여 명과 500여 신도가 운집했다.

## 임제불교조계종 창종 5주년 기념법회

### 총본산 여수 청암사서 500여명 운집

세계역사포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임제불교 조계종이 창종 5주년을 맞아 기념대법회와 지역주민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임제불교 조계종(총정 지암)은 3월 25일 여수 롯데웨딩홀에서 창종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종단 중요 직책 소임자에게 임명장과, 법계고시 수여증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암 스님, 각성 스님(전 국사실사암단체 총연합회 총재), 화담 스님(대한불교 불교종 총무원장), 법각 스님(한국불교교강종 총무원장), 진옥 스님(여수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여했다.

범요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상축기원문,

발원문, 경과보고, 임명장 및 법계고시 수여증,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장학금 전달, 환영사, 축사 법어가 진행됐다.

지암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여수와 인연을 맺은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제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정암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매월 광주소년원에 1대1 멘토링을 통해 30여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유수인제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900회 맞은 부산불교 거사림 법회

1972년 7월 31일 영도 도서관에서 금강경 강송회를 계기로 창립한 부산불교 거사림(회장 원당 최수환)이 3월 27일 제 900회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증명법사로 참석한 남해 용문사 주지 성진 스님은 "나라는 생

각을 버리고 생활하면 삶의 터전이 행복하고 나의 존재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법문했다.

최수환 회장은 "앞으로 거사림을 부산 대표 포교사단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용문사 성진 스님과 거사림 회원들이 기념법회를 통해 활발한 신행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1.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짚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2.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3.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4.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들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린1개, 맨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힌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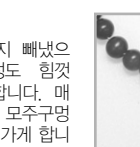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린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꿰뚫습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맨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맨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리미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